사족을 못 쓰면서 살기

(마태복음 17:1~13)

1.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사족을 못 쓰면서 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사족을 못 쓰면서 살기'
사족을 못 쓴다는 말은 "무슨 일에 반하거나 혹하여 꼼짝 못하다"라는 뜻으로써 아무 것도 못할 정도로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족(四足)은 사람의 두 팔과 두 다리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면 사지를 쓸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사족을 못 쓸 정도로 행복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족을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행복할 때에는 사족을 쓸 수 없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의 돌판을 받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34장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고 했듯이 얼굴에서만 빛이 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

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면 마치 예수님 자신이 발광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빛이 옷을 투과하여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로써 마치 예수님께서 빛 덩어리가 되신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후에 영혼이 아버지와 함께 거할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천국에서 신령한 모습이 된다면 예수님처럼 빛 덩어리와 같이 될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의식은 상대에 의해 결정됩니다. 육체의 모습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남들보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심판 때에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바람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야 말로 억울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되 특히 4절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한 부분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여기'는 변화산 위입니다. 산 위는 산 아래의 인간 세상과 대비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인간 세상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좋은 것은 맞지만 머지않아 내려가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으니 아예 초막을 짓고 살겠다"는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 사족을 못 쓰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산 아래에 있던 동료들을 데리고 올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족을 데리고 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배우자이자 좋은 부모라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처자식을 먼저 챙겨야할 것입니다. 고작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부터 생각나고, 좋은 장면을 보게 되면 함께 보기를 희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서 세상은 그저 까맣게 지워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서 세상이 지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의 흡입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 앞에 설 때에 마음은 조금도 남김없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멋진 풍경을 볼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마음을 온전히 풍경에 빼앗기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앞에 설 때에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세상을 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든지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든지 조금도 그것들에게 마음을 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좋게 여겨지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들도

온전히 마음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다른 대상을 향하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라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맛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빼앗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그 어떤 대상에게도 마음을 쓸 수 없도록 마음을 빨아들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마주하게 된 사람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좋다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을 좋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의 좋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마음 바깥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 세상의 특징은 어떤 것도 인간의 마음으로 좋아하도록 만드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계획대로 창조되었음에 대해 좋다고 표현하신 것이지, 우리가 돈이나 건강을 좋아하듯이 마음이 향할 대상으로 세상을 좋다고 표현하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세상은 불살라지기 위해 기다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도 본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좋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천국에 다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것은 곧 세상을 담아낼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에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 풍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인간의 마음을 다 빨아들이는 곳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일체가 되셔서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좋아하는 피조물로써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변화산의 베드로의 고백이 이러한 인간 본연의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에 김치에 빠지게 된 독일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일단 한 번 김치 맛을 보면 사족을 못 씁니다. 우리나라의 김치를 먹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위일

체 하나님께 참여해서 사위일체가 되는 순간에 사족을 못 쓸 정도로 반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을 대할 때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길 수 있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면 애초에 사람을 천사와 같이 천국에서 살도록 만드셨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인격적 선택의 권한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초에 천국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조차 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인격적 활동과 결단에 의해 천국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만져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한 사람들만이 영원히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좋은 천국을 허락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아래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이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설령 가족조차 마음으로 좋아할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의무처럼 여겨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배우자를 좋아할 대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써 자녀를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의무처럼 여겨지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좋아하라고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상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온전하게 천국을 좋아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나라와 민족을 주셨으며 사회생활을 하며 돈도 벌고 일도 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가 천국 때문에 사족을 못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나타나도록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 주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믿음 안에서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좋아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곧 선택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과정이 제공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천국의 좋음을 받아들이고 사족을 못 쓸 정도로 행복을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산 아래 일들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배우자에 대해 잊어버릴 때에 배우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일하신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셨으며 직장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돈과 건강과 몸으로 접하는 모든 삶의 도구들을 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좋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표현될 수단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마음은 천국을 좋아하게끔 지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대상들이 좋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건강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아서 건강해지고자 하는 모습으로부터 건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절절하게 체감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똑똑해서 하는 일마다 일등을 하고 기어코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로써 자녀가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길지 쉽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좋아했던 대상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이었습니다. 천국을 목격한 베드로가 산 아래 일들을 잊어버린 모습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천국에 빨려 들어가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을 좋아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타나는 곳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대상은 인간의 마음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공백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사로잡힐 수 있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전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이나 지구의 모든 자원을 값으로 환산하더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마음보다 값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벌들을 부러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재벌들의 재산은 티끌과 아무 차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을 좋게 여기는 이유는 마귀가 세상을 값지다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마음에 귓속말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마귀도 우리의 마음에 귓속말을 합니다. 멋진 이성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니 마음을 주고 신경을 써보라고 유혹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대상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값진 마음이 이성에게 달라붙으면 값지고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좋아할 대상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권사님이 롤렉스시계를 차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선물한 그 시계는 무려 330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 굉장히 검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시계를 차고 계신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고 계신다고 합니다. 시계의 기능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 원만 주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계가 3300만원이나 되는 이유는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값진 보석으로 장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달라붙을 때에 마찬가지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쓴 대상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과 결혼했는데도 얼마 안 가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는 마음이 가지 않음으로 가치가 떨어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본래 마음으로 좋아하도록 만들어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좋음을 보고 사족을 못 쓰는 관계에 있을 때에 육체로 관계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나타나는 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결코 마음으로 좋아할 대상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산 아래에서 좋아하던 세상의 대상은 나라의 독립이었을 수도 있고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대하자마자 이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곧 베드로가 산 아래에서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착각에 불과했음을 강하게 시사해 줍니다. 이러한 좋아함의 착각에 빠지게 된 이유는 마음을 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천국을 대하자마자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베드로의 마음을 남김없이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분의 마음이 없으니 산 아래에 있는 가족에게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어떤 것들도 베드로가 본래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마음을 빼앗길 때에 육체를 통해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때문에 사족을 못 쓰면서 느끼는 행복과 평강을 표현할 대상들이지 결코 마음으로 좋아할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천국이 좋지? 그렇게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네 마음을 남김없이 다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천국을 갖는 방법은 초막을 짓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고 천국에 대한 그리움 또한 고백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곧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은 곧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만이 좋은 곳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베드로의 마음을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빨아들였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빨아들일 곳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을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시계에 수 천 만원 어치의 보석을 붙이면 명품이 되듯이, 단순한 화폐인 돈에 세상에서 제일 귀한 마음을 붙였기 때문에 돈은 귀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붙이게 되는 것이나 아픈 사람이 건강에 몰두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형통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본래 사람이 좋아하기에 합당한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은 아담의 유전자는 우리에게 세상을 자꾸만 좋아할 대상으로 여기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천국을 보고 사족을 쓸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천국의 좋음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같이 사족을 쓸 수 없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사로잡히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좋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천국을 보았기에 단번에 마음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사족을 못 쓰는 상태가 될 때에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좋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좋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속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가치들은 본래 마음으로 좋아하기에 합당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를 묵인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가치들이 마음으로 좋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마귀에게 속은 아담의 유전자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죽은 자로 여기기 위해 십자가 생활화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천국의 좋음을 보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좋으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무데뽀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도 될 대상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쏠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자녀에게 향하는 마음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사족을 못 쓰는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팔과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산 체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천국의 좋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천국을 붙잡기 위해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하여 반드시 천국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사족을 못 쓰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좋음을 믿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 것을 끊임없이 좋아하는 체질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변함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으로 일관하는 일 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